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Working Elderly Persons'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Self Efficacy

이신숙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hin-Sook Lee(lsi@sunchon.ac.kr)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일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조사대상은 전남에 위치한 K, S, Y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ANOVA,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는 평균 86.5점(중앙치: 81점) 이었고 자기효능감은 평균 43.2점(중앙치: 39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 점수인 79.7점, 자기효능감 점수인 평균 39.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둘째,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은 거주지, 종교, 거주상태, 경제상태, 일 참여 빈도,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한달 평균 수입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일 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본형성, 경제상태, 한달 평균수입, 배우자의 유·무, 건강상태, 거주형태, 교육수준, 종교, 일 참여빈도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주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종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설명력은 총 13% 이었다. 그리고 일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은 호혜적 규범, 경제상태, 네트워크 구축, 사회참여, 거주지, 건강상태, 신뢰감 형성, 연령, 배우자 유·무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이 갖는 영향력은 총 34% 이었다. 이들 변인 중 호혜적 규범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사회참여가 전체 영향력의 대부분인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자본형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일 참여 노인 | 사회적 자본 | 자기효능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social capital between self efficacy, and the elderly in participated employment or not. The subjects were 340 elderly people in K, S, Y City in Jeonnam.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 were reliabilit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one way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degree of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in participated employment was 86.5(median value 81), while the degree of social capital who did not participated was 79.7. And the degrees of elderly's self efficacy was 43.2, those data showed higher than median. while the degree of self efficacy who did not participated was 39.1. Second, The elderly's social capital level in participated employment were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sidence, religion, living state, economic state, frequency of employment, health state, spouse, monthly income, and the elderly's self efficacy level in participated employment were significantly according to social capital, economic state, monthly income, spouse, health state, living state, education, religion, frequency of employment, Third, participation on the employment for elderly' social capital was the highest correlation variable in self efficacy. Fourth,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elderly's social capital level were economic state, health state, spouse, religion, which explained about 13% of the total variance. And the variables that affect elderly's self efficacy level norm, economic state, network, participation, residence, health state, trust, age, spouse, which explained about 34% of the total variance.

■ keyword : | The Elderly in Participated Employment | Social Capital | Self Efficacy |

I.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었고 2018년에는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기하고 있다. 반면 출산율에 있어서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의 쇼크를 거치면서 2014년 현재 1.21명으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인구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즉, 신규진입 노동력 감소와 숙련노동자의 대거 은퇴 등은 인력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생산인구의 감소는 부양부담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소비·투자증가율의 감소로 내수시장을 위축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인들은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의 새로운 퇴직제도에 따라 정상 퇴직시기보다 더 빠른 퇴직을 맞이하며 퇴직 후 생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생활비가 과거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생활상의 변화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노년기를 맞는 노인의 경우에는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게 되며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 노인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목적이 '생계비 마련' 또는 '생활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형 노동이 많고 노인 빈곤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5.1%라는 것을 볼 때[1] 노인의 경제활동은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갤럽세계여론조사(The Gallup World Poll)에서는 2010년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들도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생계를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볼 때 앞으로의 노인들은 과거 젊은이들이 지녔던 직업을 대신한다거나 직업에서의 은퇴연령도 늘려

야 하는 등 이들 세대의 일자리 참여에 대한 논의도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노동이나 일은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적 활동이긴 하지만 특히 노년기에 하게 되는 일은 수입의 획득,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의 확인, 능력감의 고취, 정체감과 자신감의 고양, 정서적 만족감,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 심리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노년기에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2-4]에서도 일하는 노인일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가족관계도 원만하다고 밝히고 있어 노인들은 일을 통해 신체 및 건강유지,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활력, 일에 대한 즐거움, 여가선용의 기회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증진,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직접 노인의 근로를 장려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는 독특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이 실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단절되지 않고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바 2016년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통계청[5]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고령취업자는 7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참여직종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36.1%)의 비율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9.1%), 서비스판매종사자(14.7%), 기능기계조종종사자(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에 힘입어 노인의 일에 대한 참여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기의 일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젊은 시절에 소홀했던 자아실현과 생의 가치실현에 더 많은 의미를 둔다. 따라서 일을 함으로써 아직도 내가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유용감, 그 동안 소홀했던 영역에 대해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으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된

다. 이렇듯 노년기의 일에 대한 가치부여와 참여는 노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무형의 자본으로서 작용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 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인의 삶의 질이 사회적 자본과 직접 연결되어 삶의 행복과 만족의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10].

또한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행동과 사고의 적응도가 떨어지는 상실감을 가져온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갖는 자기효능감에 달려 있어 노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11-14]. 즉, 특정상황에서 자신이 능력있다고 확신할 때 그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며 결국 성공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대부분이 느린 사고를 하고, 무능하고, 모호하고, 부주의하다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그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노년기에 요구되는 주요한 적응 중의 하나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서 자신을 효율적이고 유능하다고 인식하면 외부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 갖는 자기효능감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행 연구들은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추상적이고 폭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일의 참여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자기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자본과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년기의 발달적 과제인 성공적 노화와 직결된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은 일에 대한 참여가 노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고 사회의 건강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잠재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여 노년기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의 생활상과 일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의 질 향상은 인간의 노화를 지연시켜 우리는 이전세대보다 더 오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균수명이 남성 77.6세, 여성 84.4세[15]로 평균 81.8세가 되어 1970년대의 평균수명인 61.9세보다 20세가 늘어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인생주기에서 노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생활전반이 변화를 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와 준비의 필요성이다.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과거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했던 보편적인 장수는 누리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노년기의 삶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우리사회에서도 노년기가 갖게 되는 문제를 '3惡(4苦)로 표현되는 빈곤, 질병, 고독(무위)를 경험하고 베이비붐에 태어나서 은퇴를 통해 노인층에 합류하고 있는 신노년층(new silver)이 갖는 다양한 새로운 욕구충족을 위한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사회의 거대집단으로 화해가는 노인집단이 갖는 문제는 해

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동안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한데다가 가족부양 기능은 점차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료[16]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53.0%로 건강문제인 65.2%에 이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있어서는 60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생활비 마련은 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가장 많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건강에 있어서는 기대수명(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과는 별개로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삶의 질 저하로 안전한 노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17]. 정경희 외[4]의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율은 89.2%이고 고혈압, 골관절염 및 류마티즘, 당뇨병, 요통 및 좌골신경통 등 개인 당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들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의 특징은 치료 및 회복 또는 사망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완치가 어려워 이러한 질환을 갖게 되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상실되어 타인의 간병과 수발을 받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요하게 되는 장기요양보호의 상태가 되기 쉬워진다. 노년기의 고독과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동반되어 나타난다. 즉, 노화로 인한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배우자와의 사별, 인간관계의 상실, 경제력의 저하, 의존자로서의 전략 등은 고립감을 낳게 되고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무망감과 우울증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생활상을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활동이론가인 Havighurst(1972)는 노인도 중·장년층과 동일한 사회적 및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고 사회적응과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능동적 노년'을 강조한다[25].

노년기에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 만큼 건강이 뒷받침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에 참여함으로써 상실감을

로 인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되며 규칙적인 생활로 지속적인 건강유지에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일에 대한 참여가 아닌 노인들의 경제적 생산활동을 돕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사업명을 새롭게 개명하여 실시하는 것을 보더라도 노인들에게 경제적 활동과 더불어 여가선용을 하도록 하는 개인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으로써 노인들에게 과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회자원봉사 및 절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과 그 중요도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연령이 낮고 사회보장제도도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1]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년기 신체기능의 저하는 자신의 욕구에 반하여 일할 기회는 적지만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 내지는 유용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고양시키게 된다. 셋째, 일 참여를 통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동료나 친구와 함께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한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을 주장한 Rowe와 Kahn[18]도 노년에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병 및 장애의 예방, 신체적·인지적 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들고 있다. 그 중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는 타인과의 관계회복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노인인력의 활용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omae(1971)의 역량강화모델에 기초한 성공적인 노화이론에서도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능력을 활용한 경제적인 유용성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함을 강조한다[19].

2. 노인의 일 참여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최근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을 시작으로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issue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단위보다는 개인들이 관계를 맺어 조직의 일원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다양한 이득을 말한다. 즉, 상호 간의 인식과 인정을 토대로 발전된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통합[20]으로서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Putnam[21]은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의 성공이 그 지역사회가 지닌 사회적 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사회적 자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고 사회의 번영과 인간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갖는 기능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의 의견일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사회적 자본이 규범적 기능으로 작용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게 한다. 따라서 감시, 감독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도덕적 행위를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형성으로 신뢰를 쌓게 되면 정책집행이 쉬워지고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셋째, 앞선 신뢰로 인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정확한 정보소통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보편화된다. 넷째, 사회적 자본이 지속적으로 개인, 공동체, 국가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동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창출할 수 있는 요소로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 사회적 규범, 호혜성, 제도, 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 집단적 협력, 연계망, 이타주의, 민주주의의 성과, 지역공동체 의식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뢰, 시민사회 참여,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을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 거론하고 있다[20-22].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의 선별에 있어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을 주요 요소로 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교환을 통해 창출하며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원리로 사회적 자본에 중요한 덕목이다. 또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배태된 사회적 자본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은 국가나 시장의 영향보다는 자유로운 지역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규범은 집합적 생존에 필요한 공공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의 일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은 일과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에의 참여가 지나온 세월을 보다 가치있고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참여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의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즉 노인의 취업활동과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는 노후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노인의 사회적 조직망에로의 통합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7]. 그리고 최인재[23]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한 노인이 이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져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크기가 넓어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는 노인들의 경제적, 인지적, 신체적, 심리적인 여러 측면에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여러 연구들[7][9][24-29]은 밝히고 있다.

3. 노인의 일 참여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노년기의 연장은 노인이 일과 사회에 봉사할 수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년기는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신체 각 기관의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신체가 외적 자극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신체의 면역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신체적 영역에

서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동안 지녀왔던 습관을 비롯한 환경이 변화하여 사회적응이 힘들거나 욕구 불만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경제력이 저하되어 열등감이 생기고 심신의 기능저하가 활동력을 저하시켜 자주성이 상실되어 의존성이 증가하기도 한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정보력에서도 발 빠른 젊은 세대에 밀려 직장에서도 조기 또는 명예퇴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참여한다거나 봉사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고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에게 있어 고용의 지속성은 노인에게 있어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고용은 이런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30]. 즉, 노년기에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생계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건강 유지나 여가선용을 통한 자아실현의 충족, 삶에 대한 사기와 만족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은퇴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감[31]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 즉,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때 그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며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Bandura[31]가 처음으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개념을 제안한 이래 국내에는 1980년대에 심리학 분야에 도입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교육학 분야를 필두로 인사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노년기의 삶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연구들 [11-14][32-39]은 밝히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이 능력있고 의미있으며 성공적이고 가치로운가에 대한 일종의 믿음인 자아존중감이다. 노년기에 일하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과 경제활

동 참여에 따른 노인의 경제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의 만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절한 일을 갖고 자기 혐오를 극복하여 자기 통합성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갖는 것이다[40].

아산사회복지재단[41]에서도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참여/통합, 건강, 독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고 했으며 Rowe와 Kahn[18]의 성공적 노화의 기본적 요건이 질병 및 장애의 예방, 신체적·인지적 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라는 것으로 볼 때 노인들의 일에 대한 참여는 우리 미래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가져오는 필수요건으로 보인다.

4. 사회적 자본과 자기 효능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수준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형의 자본이다. 즉,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총합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와 조직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가장 초기의 사회적 자본은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사랑, 믿음, 따뜻함, 배려, 충분한 대화 등이 그 기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개인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지지를 받으며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킨다. 이후 성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협동과 협조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회적 자본은 확장된다[20][42]. 다시 노년기는 개인의 관심과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어 가정이 그들 관계의 중심이 되고 삶의 가치체계의 우선되기 때문에 과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생활했던 인간관계의 폭은 줄어들게 되고 사회적 자본 역시 감소한다. 그러나 일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다시 사회조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과거 성인기에 가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사회적 자본은 늘어날 수 있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노력을 기반으로 유지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자원임[43]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통해 자아효능감과 의 관

계를 살펴보면 집단과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어릴 적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갖았던 신뢰로움이 더 나아가 타인을 신뢰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이타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신뢰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변과의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지닌 개인들이 집단에 대한 지적, 정서적 관여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참여는 참여원에 대해 만족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유능함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가 향상된다[44].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보답을 바라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나 규범을 지닌 것이기에 행할 수 있는 긍정심인 포괄적 호혜성을 갖는다[21].

노인들의 일에 대한 참여가 노인들의 건강 수준을 증대시키며[45][46]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망이 유지, 확장되어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고[47][48]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좋으면 자신의 유능함과 유용성을 지니고 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높아져 행복감을 느낀다[49][50].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자아효능감과 긍정적 자아관 또는 자존감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42][51-5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남의 동부권에 위치한 K, S, Y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된 노인으로서 현재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다.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는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형 일자리사업이거나 과거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가게운영 등 다양하다.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본 연구조사를 위한 조사원은 연구자를 포함한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자료의 수집은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노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상자가 자기 보고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 등 총 7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606부로 87%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자료로써 부적절한 22부를 제외한 총 58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일 참여노인만을 따로 분석한 설문지는 총 340부이다.

2. 조사도구

일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된 질문지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12문항,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27문항,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13문항이다. 각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 종교, 거주형태, 월평균 소득, 건강상태, 경제상태, 일 참여정도, 일 참여동기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사회적 자본형성 척도

일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는 권중기[54]와 박충우[55]가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신뢰감 형성에 관한 10문항, 사회참여 정도를 묻는 4문항,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6문항, 호혜적 규범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7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자본형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 로 나타났다.

3) 자기 효능감 척도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차정은 [56]이 만든 자기효능감 척도를 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자기조절 효능감을 묻는 5문항, 자신감을 묻는 4문항, 문제해결력에 관련된 4문항 등 하위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척도에서 사용된 부정적 문항(4번, 8번, 10번)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처리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일 참여노인과 비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f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 참여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일 참여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참여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40)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일 참여 여부	참여	340	58.2
	비 참여	244	41.8
성별	남성	171	50.4
	여성	169	49.6
연령	60-64	143	42.1
	65-69	126	37.1
	70≤	71	20.8
교육수준	≤초등학교	118	34.6
	중학교	95	27.9
	고등학교≤	127	37.5
배우자 유.무	유	261	76.7
	무	79	23.3
거주지	시	255	75.0
	읍.면	85	25.0
종교	유	217	63.8
	무	123	36.2
주거상태	홀로	77	22.5
	부부끼리	181	53.3
	자녀와 함께	82	24.2
한 달 평균수입	≥1,000,000	127	37.3
	1,010,000~2,000,000	125	36.8
	2,010,000≤	88	25.9
건강상태	좋지 않음	65	19.2
	보통	180	52.9
	좋음	95	27.9
경제상태	좋지 않음	58	17.1
	보통	230	67.5
	좋음	52	15.4
일 참여 빈도	거의 안함 + 가끔	62	18.3
	보통	78	22.9
	자주 참여함	115	33.7
	매우 자주 참여함	85	25.0
일 참여 동기	생활비 마련을 위해	181	53.3
	사회적 활동을 위해	54	15.8
	건강을 위해	45	13.3
	가족이 원하니까	18	5.4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28	8.3
	기타	14	4.1

2. 일 참여노인과 비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조사대상자인 일 참여 노인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다음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현재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에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평균 86.5점으로 중앙치인 81점(최소: 27점, 최대: 135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에 있어서도 신뢰감 형성은 평균 31.7점, 사회참여는 평균 13.2점, 네트워크 형성은 평균 17.9점, 호혜적 규범형성은 평균 23.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참여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평균 79.7점으로 중앙치인 81점(최소: 27점, 최대: 135점)보다 낮았고 하위요인별 평균에 있어서도 신뢰감 형성은 평균 29.0점, 사회참여는 평균 12.4점, 네트워크 구축은 평균 16.1점, 호혜적 규범형성은 평균 22.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 참여 노인은 비 참여노인에 비해 사회적 자본형성이 더 많았고 그 하위요인별에 있어서도 일 참여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의 하위요인에 있어 호혜적 규범형성이 가장 높고 신뢰감 형성이 가장 낮았다는 결과는[9][57]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일 참여여부를 떠나서 노인들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호혜적 규범형성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통성과 관습 존중, 공익정신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와 신뢰감 형성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계기를 만들고 무역할에서 벗어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들[18][58][59]은 사회참여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이나 부부사이를 좋게 만들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신뢰감은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필수자원으로서 공동체 내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본으로서 장유미[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형성의 하위영역 중에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요인이었다.

한편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있어서도 일 참여 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43.2점(중앙치 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비 참여노인의 39.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자기조절 효능감이 일 참여노인은 16.5점, 비참여노인은 14.8점 이었고 자신감에 있어서는 일 참여노인이 13.4점, 비 참여노인이

12.0점 이었으며 문제해결력에 있어서는 일 참여 노인이 13.3점, 비 참여노인이 12.2점으로 하위요인별에서도 일 참여 노인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일 참여노인의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들이 노화로 인한 신체 및 건강, 지각기능도 떨어지고 은퇴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됨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저하되는데 일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자기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일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아관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40][42][60]의 연구와 일치한다.

표 2. 일 참여노인과 비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자기 효능감의 정도 (N=584)

항 목	일 참여 노인 (N=340)	일 참여하지 않은 노인 (N=244)	t 값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신뢰감형성	31.7(5.18)	29.0(5.11)	5.43***
	사회참여	13.2(2.43)	12.4(2.69)	3.26***
	네트워크구축	17.9(3.65)	16.1(3.44)	5.14***
	호혜적 규범형성	23.8(3.45)	22.2(3.94)	4.35***
	총점	86.5(10.98)	79.7(11.23)	6.38***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16.5(3.04)	14.8(2.97)	5.82***
	자신감	13.4(2.45)	12.0(2.41)	5.70***
	문제해결력	13.3(2.18)	12.2(2.23)	5.15***
	총점	43.2(6.56)	39.1(6.62)	6.47***

· 사회적자본 총점의 중앙치: 81점(최소: 27점-135점: 최대)
· 자기효능감 총점의 중앙치: 39점(최소: 13 -65점: 최대)
· *** p<.0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조사대상자인 일 참여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표 4]와 같다. 먼저 [표 3]에서와 같이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은 거주지(F=8.25)가 p<.001수준에서 종교(F=5.62), 거주상태(F=4.65), 경제상태(F=4.51), 일 참여빈도(F=4.02)에 있어서는 p<.01 수준에서 건강상태(F=2.15), 배우자 유.무(F=2.05), 한달 평균 수입(F=2.01)에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거주지가 ‘시’ 지역인 집단이 ‘읍.면’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많

았다. 또한 종교를 가진 노인집단이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노인보다, 경제적 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인보다, 일에 자주 참여하거나 매우 자주 참여하는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사회적 자본형성 정도가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한달 평균 수입이 101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만원 이하인 노인집단보다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 중 거주지가 시 지역에 사는 일 참여 노인이 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일 참여노인보다 사회적 자본형성이 높은 이유는 도시지역에서 일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일을 통해 접촉하는 사람이나 활동의 폭이 시골보다는 넓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 더 용이하다고 사료되며 일 참여 과정에 발생하는 법적 제약이나 규칙도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 진화숙[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노인일수록 네트워크가 약하고 가족마저 신뢰할 수 없고 국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고 사회참여를 어렵게 인식한다고 해석한 이현주외[61]와 이정복[6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배우자의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은퇴자가 비동거하고 있는 은퇴자보다 사회적 자본형성이 높다는 결과에서는 김태호[6]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는데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자본형성이 높다는 김태호[6]의 결과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다음으로 [표 4]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형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본형성(F=25.02), 경제상태(F=23.84), 한달 평균수입(F=16.39), 배우자의 유무(F=9.86), 건강상태(F=9.01)는 p<.001 수준에서 거주형태(F=6.28)는 p<.,01 수준에서 교육수준(F=2.31), 종교(F=2.11), 일 참여빈도(F=2.02)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

다,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집단이 그렇지 못한 노인집단보다, 한달 평균 수입이 101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만원 이하인 노인집단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노인보다, 교육의 정도가 고졸 이상인 집단이 중졸 이하인 집단보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갖지 않은 집단보다, 일 참여빈도가 매우 자주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노인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는 노년기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은퇴자들이 노화를 성공적이라고 느낀다는 김태호[6]의 연구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치한다.

표 3. 일 참여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 (N=340)

변인	구분	빈도	사회적 자본			
			Mean(SD)	t	F	Dun.
성별	남성	171	87.1(11.95)	0.17		A
	여성	169	86.0(9.92)			
연령	60-64	143	86.6(9.93)		1.75	A
	65-69	126	87.2(11.50)			
	70≤	71	85.3(12.13)			
교육수준	≤초등학교	118	84.3(9.08)		1.47	A
	중학교	95	87.6(12.70)			
	고등학교≤	127	87.8(11.02)			
배우자 유·무	유	261	87.2(10.14)	2.05		B
	무	79	84.3(11.17)			
거주지	시	255	87.8(11.39)	8.25		A
	읍·면	85	82.5(8.43)			
종교	유	217	89.6(10.52)	5.62		A
	무	123	83.2(11.23)			
주거상태	홀로	77	82.2(11.88)		4.65	B
	부부끼리	181	86.9(9.46)			
	자녀와함께	82	90.0(12.06)			
한달 평균수입	≥1,000,000	127	83.8(10.60)		2.01	B
	1,010,000-2,000,000	125	88.2(12.04)			
	2,010,000≤	88	88.8(8.79)			
건강상태	좋지 않음	65	84.3(11.73)		2.15	B
	보통	180	85.8(9.63)			
	좋음	95	89.4(12.37)			
경제상태	좋지 않음	58	79.9(8.53)		4.51	C
	보통	230	87.0(10.48)			
	좋음	52	91.9(12.16)			
일 참여빈도	거의안함+가끔	62	85.7(10.64)		4.02	AB
	보통	78	83.3(10.02)			
	자주 참여 매우 자주참여	115 85	88.8(11.14) 87.1(11.35)			

* p<.05, ** p<.01, *** p<.001
 • Dun. 은 집단 간의 차를 기호로 설명해 주는 Duncan-test 임.
 (예: ABC로 표시될 때 A는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 B는 중간집단, C는 가장 낮은 집단을 의미함)

표 4. 일 참여노인의 제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N=340)

변인	구분	빈도	자기 효능감			
			평균 (표준편차)	t	F	Dun.
성별	남자	171	43.4(6.99)	1.09		A
	여자	169	43.0(6.10)			
연령	60-64	143	43.1(7.28)		0.97	A
	65-69	126	43.4(6.42)			
	70≤	71	42.8(5.22)			
교육수준	≤초등학교	118	42.5(6.00)		2.31*	B
	중학교	95	42.7(5.64)			
	고등학교≤	127	44.1(7.56)			
배우자유무	유	261	43.7(6.41)	9.86***		B
	무	79	41.6(6.54)			
거주지	시	255	43.1(6.96)	0.63		A
	읍.면	85	43.2(5.06)			
종교유무	유	217	43.7(6.92)	2.11*		A
	무	123	42.6(6.18)			
주거상태	홀로	77	41.5(6.46)		6.28**	B
	부부끼리	181	43.3(6.10)			
	자녀와함께	82	44.5(7.37)			
한달 평균수입	≥1,000,000	127	41.9(5.90)	16.39***		B
	1,010,000-2,000,000	125	43.6(6.72)			
	2,010,000≤	88	44.7(7.07)			
건강상태	Poor	65	41.6(7.31)	9.01***		B
	Moderately	180	42.6(6.14)			
	Good	95	45.4(6.33)			
경제상태	Poor	58	39.8(7.05)	23.84***		C
	Moderately	230	43.1(5.89)			
	Good	52	47.5(6.55)			
일참여빈도	거의 안함+가끔	62	44.0(6.32)	2.02*		AB
	보통	78	42.3(5.78)			
	자주참여	115	42.0(6.86)			
	매우자주참여	85	45.0(6.63)			
사회적자본상	하	68	41.0(6.12)	25.02***		B
	중	110	41.9(5.27)			
	상	62	47.8(6.94)			

* p<.05, ** p<.01, *** p<.001

·Dun. 은 집단 간의 차를 기호로 설명해 주는 Duncan-test 임.
(예: ABC로 표시될 때 A는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 B는 중간집단, C는 가장 낮은 집단을 의미함)

4.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r=.4298(p<.001)$ 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은 자기효능감과 매우 밀접하고 그 하위요인인 신뢰감 형성, 사회 참여, 네트워크 구축, 호혜적 규범형성도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문제해결력과 각각 관련도가 높았다.

표 5. 일 참여노인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N=340)

	1	2	3	4	5	6	7	8	9
	신뢰감 형성	사회 참여	네트워크 크구축	호혜적 규범형 성	사회적 자본	자기조 절효능 감	자신감	문제 해결력	자기 효능감
1	1								
2	.3538 (***)	1							
3	.3192 (***)	.4806 (***)	1						
4	.3997 (***)	.4807 (***)	.4275 (***)	1					
5	.7817 (***)	.6992 (***)	.7234 (***)	.7512 (***)	1				
6	.1379 (*)	.3136 (***)	.3361 (***)	.4067 (***)	.3733 (***)	1			
7	.1470 (*)	.2752 (***)	.3891 (***)	.3369 (***)	.3654 (***)	.5384 (***)	1		
8	.1822 (***)	.3059 (***)	.2821 (***)	.3560 (***)	.3593 (***)	.6077 (***)	.6527 (***)	1	
9	.1794 (***)	.3497 (***)	.3947 (***)	.4316 (***)	.4298 (***)	.8663 (***)	.8396 (***)	.8578 (***)	1

* p<.05, *** p<.001

5.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 변인의 영향력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 변인은 ANOVA를 통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진단 과정으로 잔차 분석을 통한 Durbin-Watson 계수를 알아 본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0013 < r < 0.6381$ 로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1.34 < VIF < 1.89$ 의 범위로 VIF가 10이상일 때 발생하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투입한 변인들로는 상관관계분석을 거친 변인들 외에 일부 주 명목변인들을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여 함께 투입하였다.

1)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주변인의 영향력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이 다음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경제상태($\beta=.274$), 건강상태($\beta=.175$)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beta=.124$), 종교($\beta=.109$)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이 갖는 영향력은 총 13%였으며 그 중에서 경제상태는 7%의 영향력으로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종교를 가질수록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무형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노인이 갖는 경제력과 건강상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노년기의 풍요로운 삶과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은 사회적 자본형성인 이웃과의 연결이라든지 믿음형성 등에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짐으로써 종교를 통한 이웃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네트워크의 구축, 신뢰감 형성, 호혜적 규범형성 등에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표 6.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주 변인의 영향력 (N=340)

변인	B	β	R ²	누적 R ²
경제상태	3.151	.274**	0.07	0.07
건강상태	.726	.175**	0.03	0.10
배우자 유·무 ^{a)}	.599	.124*	0.02	0.12
종교 ^{a)}	.628	.109*	0.01	0.13
상수 = 33.55 R ² = .13 F = 2.92***				

* p<.05, ** p<.01, *** p<.001

a) 더미 처리 변수

배우자유·무: 유(1), 무(0)

종교: 유(1), 무(0)

2) 일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 변인의 영향력

일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이 다음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호혜적 규범($\beta=.323$), 경제상태($\beta=.194$), 네트워크 형성($\beta=.173$)이 $p<.001$ 수준에서, 사회참여($\beta=.104$), 거주지역($\beta=.097$)이 $p<.01$ 수준에서, 그리고 건강상태($\beta=.070$), 신뢰감 형성($\beta=.070$), 연령($\beta=.062$), 배우자 유·무($\beta=.052$)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이 갖는 영향력은 총 34%였으며 사회적 자본형성의 하위요인인 호혜적 규범과 네트워크 형성, 사회참여가 전체 영향력의 대부분인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호혜적 규범의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네트워크 형성이 많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도시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뢰감 형성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자기효능감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규범을 가진 시민성의 고양을 가져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자기 주도성의 강화를 가져와 개인의 자율적 삶으로 유도된다는 Putnam[21]의 주장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김태호 [6]도 연구를 통해 퇴직자들은 자기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형성을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 참여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신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노인이 갖는 자기효능감에 사회적 자본 형성의 영향력은 매우 커 노인들이 자신에 대한 효용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일 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 변인의 영향력 (N=340)

변인	B	β	R ²	누적 R ²
호혜적규범형성	.615	.323***	.18	.18
경제상태	1.770	.194***	.04	.22
네트워크구축	.312	.173***	.03	.25
사회참여	.283	.104**	.02	.27
거주지 ^{a)}	1.026	.097*	.02	.29
건강상태	.671	.070*	.02	.31
신뢰감형성	.089	.070*	.01	.32
연령	.442	.062	.01	.33
배우자유·무 ^{a)}	1.269	.052	.01	.34
상수 = 17.98 R ² = .34 F = 6.40***				

* p<.05, ** p<.01, *** p<.001

a) 더미 처리 변수

거주지: 시(1), 읍·면(0)

배우자유·무: 유(1), 무(0)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저 출산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더불어 성공적인 노년기의 적응과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의 만족을 위해서이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행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 일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피하고 자신에 대한 유용감과 자신감을 가져다주며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과 활력감을 가져다준다. 또한 무엇보다도 노인에게 대한 역할부여가 사회의 일원으로써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이며 사회적 자본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며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는 평균 86.5점으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평균 79.7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위요인인 신뢰감 형성,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호혜적 규범형성에서도 모든 하위요인이 일 참여노인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높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있어서는 일 참여 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43.2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39.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문제해결력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일 참여 노인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은 거주지, 종교, 거주상태, 경제상태, 일 참여 빈도,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한달 평균 수입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거주지가 '시' 지역인 집단이 '읍·면'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종교를 가진 노인집단이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노인보다, 경제적 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인보다, 일에 자주 참여하거나 매우 자주 참여하는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사회적 자본형성 정도가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한달 평균 수입이 101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만원 이하인 노인집단보다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일 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본형성, 경제상태, 한달 평균수입, 배우자의 유무, 건강상태, 거주형태, 교육수준, 종교, 일 참여빈도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집단이 그렇지 못한 노인집단보다, 한달 평균 수입이 101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만원 이하인 노인집단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없는 노인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노인보다, 교육의 정도가 고졸 이상인 집단이 중졸 이하인 집단보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갖지 않은 집단보다, 일 참여빈도가 매우 자주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노인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

셋째,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요인인 신뢰감 형성, 사회 참여, 네트워크 구축, 호혜적 규범형성도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문제해결력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 참여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주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종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설명력은 총 13% 이었다. 즉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종교를 가질수록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일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은 호혜적 규범, 경제상태, 네트워크 구축, 사회참여, 거주

지, 건강상태, 신뢰감 형성, 연령, 배우자 유·무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이 갖는 영향력은 총 34% 이었다. 이들 변인 중 호혜적 규범형성, 네트워크 구축, 사회참여가 전체 영향력의 대부분인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자본형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호혜적 규범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네트워크 구축이 많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거주지가 도시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뢰감 형성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자기효능감은 높았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기에 일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형성과 노인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노인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년기 일의 의미와 사회적 자본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 효능감을 살펴 본 결과 일에 대한 참여여부는 사회적 자본형성과 노인의 자기 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회적 자본 형성 중에서도 호혜적 규범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노인은 일의 참여를 통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판단, 평가, 행위 등의 기준이 되는 행동양식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혜성이 있을 때 신뢰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혜적 규범은 신뢰와 불가분의 관계로 노인들이 일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호혜적 규범과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노년기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상실감을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갖고 극복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였던 ‘생활비가 부족해서’ 만이 아니고 앞으로 노인들이 일에 참여하는 이유는 ‘일이 재미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나의 발전을 위해’ 등의 여러 요인이 노인들이 일에 참여하는 이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은 노인의 자기 효능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 참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웃 간 그리고 동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간 상호 간에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역할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 노년기 삶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일 참여는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쳐 노년기를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유휴인력을 활용한 사회활동으로 노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나아가 생산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인 역량을 개발해 나갈 때 노년기의 삶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일에 대한 참여가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국가가 길어진 노년기를 재조명하고 노인들을 위한 고용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연령에 따른 부당하고 금지, 정년연장과 노인취업을 위한 직종개발, 임금보조, 재취업 상담, 직업소개 등 노인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요즘은 우리 현실에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더불어 고려해 볼 때 노인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 오고 있는 직업들의 재편성 또는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과거로부터 성년의 직업으로 여겼던 직업들(예를 들면 톨게이트 매표인, 일반 서비스직, 힘이 덜 드는 청소)은 그 자리에 노인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대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데도 현재 중·노년층이 종사하고 있는 간병이나 물리치료,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는 젊은 인력이 맡도록 하는 등 직업역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구조에서 노인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소(예: 영화관, 카페 등)에는 노인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중·노년층이 고용되어야 하는 등 노인을 위한 취업의 문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 참여노인들의 사회적 자본은 노인들의 경제상태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더 많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취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은 경제성장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노인들의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는 노년기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더 나은 경제상태를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일자리아업이 보충적 소득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 보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소득의 확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구나 뉴실버(new silver)세대들의 등장으로 여가 선용, 자아실현, 자기개발, 건강유지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욕구도 고려한 노인 취업의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노년기에 취업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은 배우자의 유·무나 거주형태에 의해서도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배우자가 존재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았는데 이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부분만 거주하는 노인들이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사회참여 등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능감에 있어서도 노인끼리만 사는 경우보다 여러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때 북유럽 노인들의 거주방식인 ‘시니어 코하우징’이라든가 Airbnb와 같은 ‘홈 셰어링’ 또는 노인동거 3세대주택 등을 개발하여 가족 및 타인과 함께 어울리며 사는 거주방식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은 일 참여빈도에 의해서 더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취업의 문이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지자

체에서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한 노력으로 취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백화점식으로 직종을 나열하고 실제 취업되는 사례는 적다는 것을 볼 때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내실있는 정책 운영으로 노인들에게 다가서야 신뢰감 형성이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남 동부지역에 소재한 K, S, Y시의 일 참여 노인과 비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적인 연구결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 참여 직종도 다양하여 이로 인한 결과의 bias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노년기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 참여가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노년기의 일 참여의 중요성과 노년기에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 [1] 류진석, 김대환,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계간 보험동향*, Vol.58, pp.1-31, 2011.
- [2] 윤민석,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pp.331-398, 2015.
- [3] 이해영, *노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2012.
- [4]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진희,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5] 통계청,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5.
- [6] 김태호, *베이비부모 퇴직자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7] 장유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8] 조주은, 지역 메가이벤트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긍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9] 진화숙, 일자리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0] 최경옥,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1] 강미선,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2] 김미혜, 신경림,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5권, 제2호, pp.35-45, 2005.
- [13] 이안나,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4] 주민경,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개념에 대한 암시적 타당화,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5]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5.
- [16]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2015.
- [17]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7월호, 2016.
- [18]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1998.
- [19] 안홍순, 노인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4.
- [20] P. Bourdieu,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 *Theory and Society*, Vol.14, No.6, pp.723-744, 1985.
- [21]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13, pp.35-42, 1993.
- [22] J.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90.
- [23] 최인자, 노인 일자리사업과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4] 권구영, 박공식,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3호, pp.527-547, 2007.
- [25] 권중돈,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10.
- [26] 오혜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7] 최은희,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8] H. M. Abu-Rayya, “Depression and social involvement among elders,” *Internet J. of Health*, Vol.5, No.1. pp.9-13, 2006.
- [29] J. Siegrist and M. Wahrendorf, “Participation in socially productiv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in early old age: Findings from SHARE,” *J.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19, No.4, pp.317-326, 2009.
- [30] 박상돈, 박순미, 이경희,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2015.
- [31] A. Bandura, “Self 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Vol.37, No.1, pp.122-127, 1986.
- [32] 강수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3] 김경림, 유아교육 종사자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4] 김은희,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5]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 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25-158, 2008.

- [36] 백인경,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7] S. L. Anderson and N. E. Betz, "Sources of social self efficacy expectations: Their measurement and relation to career development," J of Vocational Behavior, Vol.58, pp.98-117, 2001.
- [38] S. G. Robinson and E. R. Pizzi, "Maximizing stroke recovery using patient self-care, self-efficacy," Rehabil Nurs, Vol.28, No.2, pp.48-51, 2003.
- [39] S. Tedman, E. Thornton, and G. Baker,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core beliefs perceived self efficacy in adult with epilepsy," Seizure, Vol.4, pp.221-231, 1995.
- [40] 김소향, 이신숙, "노인일자리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1호, pp.309-327, 2009.
- [41] 아산노인복지재단,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25회 재단 창립 기념 심포지움, 2003.
- [42] 정은진, 이재덕, 정향윤,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자아관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제1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2015.
- [43] 유석춘, 장미혜, "연구논문: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제8권, pp.87-125, 2002.
- [44] 원효연, 영어 팀티칭 수업 연구,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5] 서지원,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pp.31-55, 2008.
- [46] 김준홍, "사회적 자본, 신체활동 그리고 주관적 건강: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한 정책의 근거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28권, pp.61-90, 2010.
- [47] 신상식, 최수일, "노년기 여가활동이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텔 관광 연구, 제12권, 제3호, pp.173-189, 2010.
- [48] 이정규, "지역사회 중심의 전환훈련 프로그램이 학령기 지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기술에 미치는 효과,"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9] J. F. Helliwell and R. D. Putnam,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Vol.359, pp.1435-1446, 2004.
- [50] D. G. Myers and E. Diener, "Why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6, No.1, pp.10-19, 1995.
- [51] C. H.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Transaction Pub, 1992.
- [52] G.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Univ. of Chicago press, Vol.1, 1934.
- [53] E. Diener, E. Sandvik, and W. Pavot,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subjective well-being," Edited by F. Strack, M. Argyle and N. Schwarz, Oxford, England: Pergamon, pp.119-139, 1991.
- [54] 권중기, *사회적 자본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55] 박충우,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56] 차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57] 임종임, 이신숙,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pp.300-313, 2014.
- [58] 김경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생활만족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59] 김동배, 박은영,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8권, pp.339-358, 2007.
- [60] 홍석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비교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61] 이현주, 정순돌, 김고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적 자본 경험과 의미,"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143-168, 2013.
- [62] 이정복, *노인평생교육에서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저 자 소 개

이 신 숙(Shin-Sook Lee)

정회원



- 1994년 2월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 박사)
- 2002년 8월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석사)
- 1996년 3월 ~ 2016년 11월 현재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영역